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3 "우리도 뛴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전남도교육청 직원들이 청사앞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전남 교육 도약을 향해 '출발'

### ■ 전남도교육청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의 전남도교육청 교육지표를 되새기며 달리겠습니다"

오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전남도교육청 직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참가하는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한 해의 목표를 재점검하고 실천하는 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은 마라톤 출전 여세를 몰아 16개 시·도에서 가장 투명하고 뛰어난 행정력을 갖춘 교육청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며, 2008년도 전남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기본학력 정착 및 창의성 개발 ▲글로벌 시대 적응능력 배양 ▲자율·책임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주요시책으로 삼고, 좋은 책 60권 읽기 운동, 전남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직원 100명 화합·결속력 높이기

정현석 전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3·1절 전국마라톤 참가를 통해 전남도교육청 직원들의 화합과 결속력이 높아졌다"며 "이제 직원들 스스로 3월 1일 마라톤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무과, 초등·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등 12개과에서 10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3·1정신을 되새기고 전남도교육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현석 기획관리국장은 평소 골프와 등산으로 단련된 체력을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외유내강형인 선성수 교육국장도 등산으로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함께 뒤처지지 않고 골인점을 통과할 계획이다.

구제풍 총무과장은 등산과 골프로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어 5㎞달리기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직원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 헬스·조깅·등산으로 체력 다져

혁신복지담당관실 김봉연씨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평소 신조대로 아침 헬스를 통해 가꿔온 체력과 젊은이의 패기를 보여줄 계획이다.

총무과 임의환 사무관은 매일 집에서 사무실까지 2㎞를 걸어서 출·퇴근 하며 체력을 다지고 있다. 임사무관은 "건강도 챙기고, 교통비도 아낄 수 있어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총무과 박혜경(여)씨는 매일 3시간씩 석문호흡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있는데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몸도 건강해 진다"고 이번기회에 호흡법을 전파시킬 생각이다.

평생교육체육과 김영선씨는 평소 테니스 동문회 활동을 통해 다져진 체력을 보여줄 계획이고, 재무과 양창근씨는 새벽조깅으로 단련된 안정된 달리기 실력을 과시할 생각이다.

감사담당관실 이동수씨도 새벽조깅을 통해 마라톤이 생활화돼있어 내년에는 10㎞나, 하프마라톤에 도전 계획을 세우고 조깅거리를 늘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지성·영표·기현·동국 내일 새벽 동시 출격

# 올 시즌 한국인 첫 골 터진다

1기 허정무호에 탑승한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설기현(29·풀럼), 이영표(31·토트넘)가 이번 주말 같은 시간대에 출격한다.

박지성은 20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외곽 마데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레딩FC와 원정경기를 앞두고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오랜 부상을 털고 복귀한 뒤 지난 1일 버밍엄시티전과 6일 애스턴빌라전에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던 박지성은 13일 뉴캐슬전에서 벤치만 달구며 한 박자를 쉬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라이언 긱스가 선발로 나왔고 베테랑 긱스의 교체 멤버로는 호날두와 같은 포르투갈 출신의 나니가 투입됐다.

박지성으로선 우선 나니와의 1차 주전 경쟁을 뚫는 게 급선무다. 16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는 호날두가 부동의 공격 핵심이라고 볼 때 긱스의 대체 자원으로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가 열쇠다.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설기현은 같은 시간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 홈구장에서 리그 2위 아스널과 맞닥뜨린다.

풀럼이 줄기차게 공격수 영입을 시도하고 있어 설기현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하다.

아스널은 맨유와 승점(51)은 같고 골 득실에서만 뒤진 2위. 풀럼을 상대로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여 힘든 승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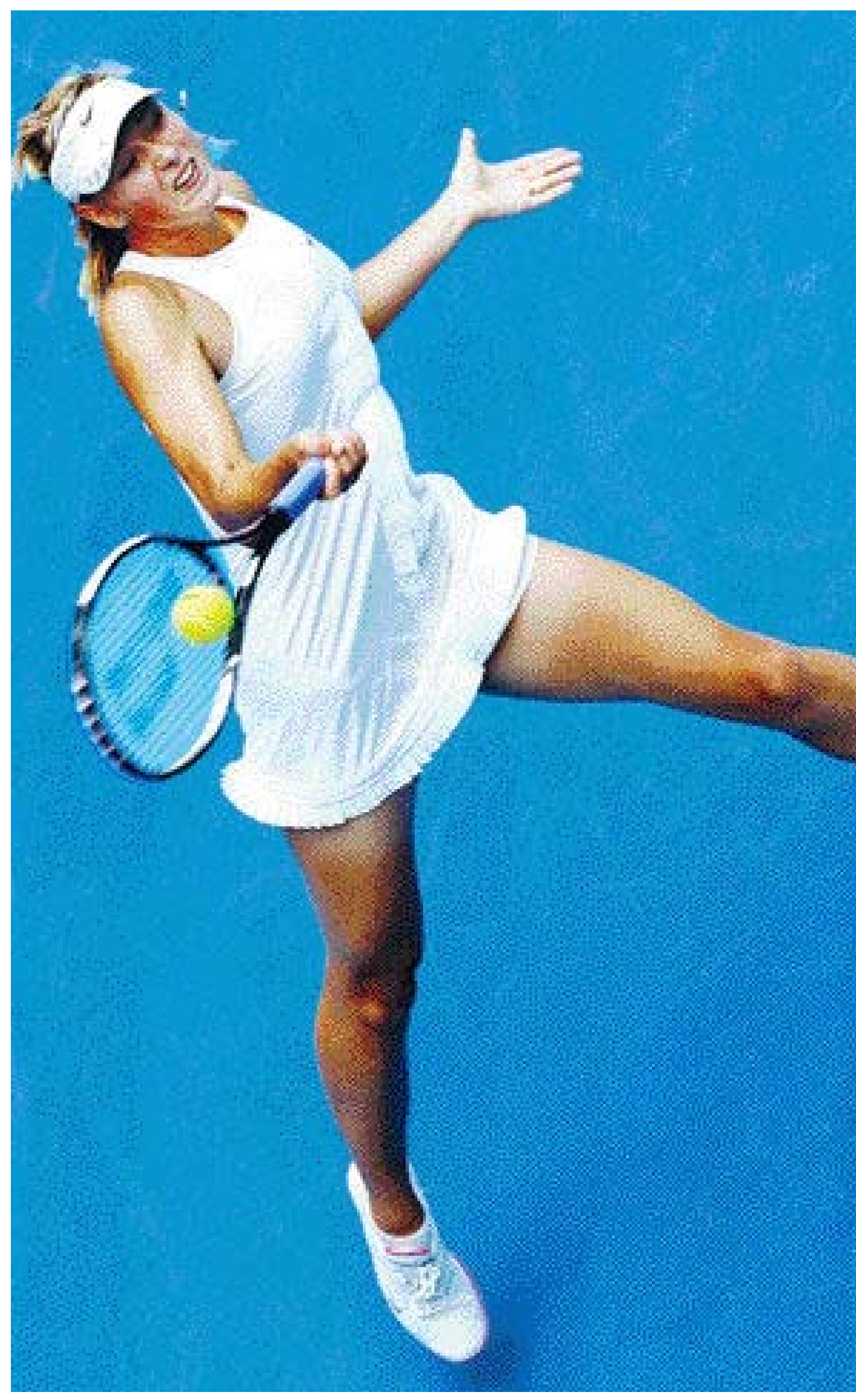
'살생부'에 올랐다는 소문에다 토트넘 구단의 끊임없는 왼쪽 풀백 욕심으로 맘고생을 하고 있는 이영표도 20일 자정 런던 화이트하트레인 홈구장에서 선덜랜드와 맞붙는다.

음주파문 징계로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한 이동국(29·미들즈브러)은 같은 시간 이우드 파크에서 블랙번 로버스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지난 16일 네덜란드컵 16강전에서 아마추어팀 SV 되르네를 상대로 네덜란드 진출 이후 첫 도움을 기록한 이천수(27·페예노르트)는 20일 오전 4시30분 엑셀시오르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마수걸이 골에 도전한다.

▲축구 유럽파 출전 일정(20일)=박지성 레딩-맨유(자정·마데스키) 설기현 풀럼-아스널(자정·크레이븐코티지) 이영표 토트넘-선덜랜드(자정·화이트하트레인) 이동국 블랙번-미들즈브러(자정·이우드파크) 이천수 엑셀시오르-페예노르트(04시30분·스타드 로테르담)

/연합뉴스


**샤라포바의 리턴**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챔피언십 여자단식 3라운드에서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가 엘레나 베스니나(러시아)에게 리턴샷하고 있다. 샤라포바가 2-0(6-3 6-0)으로 완승했다. /연합뉴스

##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미드필더 정경호 영입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는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출신 미드필더 정경호(21)를 2년계약으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166㎝, 68㎏의 정경호는 2006년 경남FC 창단 멤버로 프로에 입문한 뒤 K-리그 통산 53경기에서 1골을 넣고 1도움을 기록했다.

박항서 전남 신임 감독은 경남 사령탑 시절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하고 공격까지 가능한 정경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이번 영입을 성사시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K-리그 정규리그 1위 팀도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한국프로축구 연맹은 18일 2008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프로축구 K-리그 정규리그 1위 팀에게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09년 AFC 챔피언스리그부터는 K-리그 우승팀과 정규리그 1위 팀, FA컵 우승팀 등 3개 팀이 출전하게 된다.

한편 올 시즌 K-리그와 컵 대회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지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6강 플레이오프제도의 골격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현대 매각' 3개 기업과 협상

### 하일성 KBO 총장 "KT보다 적극 투자 기업 있다"

현대야구단 매각에 3차례나 실패해 곤경에 빠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마지막 협상에 나섰다.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18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마친 뒤 "KBO는 서울을 연고로 3개 기업과 구단 매각 협상을 추진중이며 협상에 관한 전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체적인 기업명을 절대 밝힐 수 없지만 외국기업도, 현대 계열도 아니다"고 설명한 뒤 "가입금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KT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두 기업은 아주 적극적이고 나머지 한 군데는 가능성을 50-50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가입금 60억원만 내고 프로야구단을 창단할 예정이던 재계 7위 KT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분명 있다는 뜻이다.

하 총장은 "세 기업에 각각 다른 조건을 제시했고 보안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사회로부터 현대를 인수할 새 기업을 결정하는 권한만 KBO가 위임받았고 이후 가입금 등 돈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가입금을 납부하면 KBO가 프로야구 참여를 승인한 뒤 가입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이사회에서 재논의한다는 뜻이다.

신생팀이 서울 연고를 희망중인 것을 감안할 때 기존 7개 구단들은 서울 입성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 골프장 | 시세(만원) | 골프장 | 시세(만원) |
|---|---|---|---|
| 광주 | 3,450 | 송원콘도 실버 | 1,700 |
| 남광주 | 4,400 | 골드 | 1,900 |
| 승주 | 8,200 | 로얄 | 2,100 |

상담문의 (062)351-0095

### 스포츠중계

19일(토)
▲2008 PGA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3R(05 : 00·SBS골프·SBS스포츠)
▲07/08 V리그〈LIG손보 : 상무〉(14 : 30·KBS N SPORTS)
▲2008 여자골프 월드컵 둘째날(19 : 00·SBS골프)

20일(일)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레딩 : 맨체스터 Utd〉(00 : 00·MBC ESPN)
▲07/08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축구(04 : 00·KBS N SPORTS)
▲07/08 네덜란드리그〈엑셀시오르 : 페예노르트〉(04 : 15·SBS스포츠)
▲2008 PGA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4R(06 : 00·SBS골프·SBS스포츠)
▲07/08 V리그〈한국전력 : 대한항공〉(13 : 30·KBS N SPORTS)
▲07/08 프로농구〈KTF : 모비스〉(14 : 50·XPORTS)〈오리온스 : 전자랜드〉(14 : 50·SBS스포츠)〈삼성 : LG〉(17 : 00·XPORTS)
▲07/08 여자프로농구〈KB국민은행 : 신한은행〉(16 : 50·SBS스포츠)
▲2008 여자골프 월드컵 최종일(19 : 00·SBS골프)

## 핸드볼 올림픽 예선 29·30일 재경기 중동 국가들 불참…한·일 대결로 승부

핸드볼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예선 재경기가 예정보다 사흘 정도 늦어진 오는 29일부터 이틀 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핸드볼협회는 18일 "국제핸드볼연맹(IHF)이 아직 경기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일본협회에서 여자는 29일, 남자는 30일에 열 계획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올림픽 예선 재경기 개최가 일본 도쿄 요요기 국립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된 뒤 일본협회는 애초 여자는 26일, 남자는 27일에 경기를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해놓았다.

일본 협회는 한국에서 '홈앤드어웨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자 이처럼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핸드볼협회 정형균 상임부회장은 "일본에서 일정을 늦춘다면 한국에서 26, 27일로 당겨서 개최할 수 있다. 경기장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언제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 일정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결정은 IHF의 몫. IHF는 지난 14일까지 재경기 출전 신청을 받았지만 아시아핸드볼연맹(AHF) 회장국 쿠웨이트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모두 불참의 뜻을 밝혀 재경기는 한국과 일본의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앤서니 김·위창수 11위 봅 호프 크라이슬러 2R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과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봅 호프 크라이슬러클래식 이틀째에도 순항을 계속했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은 1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라킨타골프장 클래식코스(파72)에서 계속된 대회 2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1개를 곁들여 5언더파 67타를 쳤다.

첫날 공동 39위로 다소 밀렸던 앤서니 김은 중간 합계 8언더파 136타로 공동 11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위창수도 PGA웨스트 파머 코스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3개를 스코어 카드에 적어내 중간합계 8언더파 136타로 앤서니 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연합뉴스